유럽

EU, 비만률 감소를 위한 주류 열량성분 표시 권고

파리지사

'보이지 않는 칼로리'에 대한 경각심 고조

- 주류에 담긴 보이지 않는 칼로리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와인소비자 중 22%만이 와인의 열량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51%는 실제보다 적은 열량을, 나머지 12%는 와인에는 열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사망원인의 60%가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성인의 하루 설탕 섭취권장량을 6스푼으로 한정했다.
- 이에 프랑스정부는 청량음료 330ml 당 비만세 0.02유로(30원)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정부 역시 2018년 4월 6일부터 청소년 비만감소를 위해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해 100ml당 설탕이 5g 이상 함유된 음료는 리터 당 18펜스(약 270원), 8g 이상은 리터 당 24펜스(약 360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있다. 헝가리는 2011년 9월 1일부터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음료는 리터 당 300포린트(약 1,715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주류 영양성분 표시의 필요성 대두

- 유럽연합은 지난 2011년 법개정을 통해 2014년 12월부터 식품 및 주류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한 바 있는데, 1.2도 이상의 주류는 제외대상이었다(Regulation(EU) No.1169/2011). 하지만 최근에는 비만률 상승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1.2도 이상의 주류에도 영양성분을 표시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 주류는 전분과 당분을 주원료로 하기 때문에 많은 열량을 포함한다(1g당 7kcal). 와인 한잔 당 열량은 대략 160kcal로 파운드케이크 한조각과 같으며, 두잔이면 맥도날드 감자튀김의 열량보다 높다.

EU, 주류의 열량 · 영양 표시를 위한 자체규정 제출 · 실행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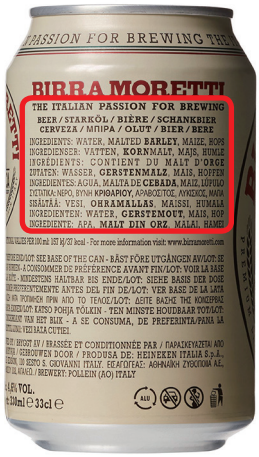
- 유럽연합은 '알코올 음료에 대한 열량 및 영양정보의 부재'를 정당화할 객관적 이유가 없다며, '주류에 대한 열량 및 영양표시' 계획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 주류업계에 '자체규정(Self-Regulatory Proposal)'을 제출 · 실행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서 자체규정이란, 주류 라벨링에 관련정보를 기입하고 제조사 홈페이지에 해당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유럽연합위원회는 주류업계 자체규정을 검토한 후에 소비자에게 열량과 영양성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럽연합 차원에서 '표시방안 의무화 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식품시장의 이슈는 비만문제 해소

- 유럽은 현재 비만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만과의 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업계도 소비자의 비만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홍보하는 마케팅전략의 대두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 네덜란드의 하이네켄과 이탈리아의 모레띠(Moretti) 등 대형 주류업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자율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식음료브랜드에서 신규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라면, 지금의 추세를 눈여겨보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한다.

| 열량 · 영양표시를 표기한 주류 제품 |

하이네켄



모레띠

출처 : www.wnd.com, www.heineken.com/kr, www.catawiki.com

출처 : 유럽식품안전청(EFSA),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